

	CGV 양주옥정 경기도 양주시 옥정로 2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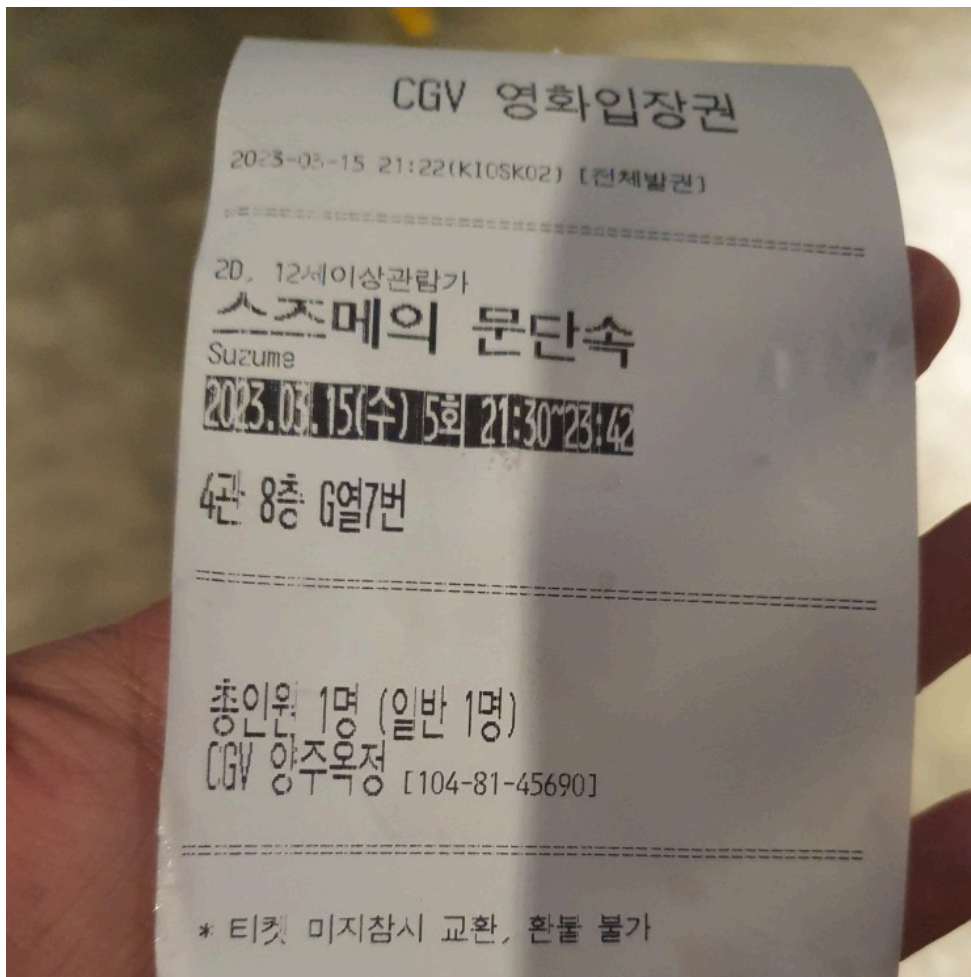


원래 영화 보는 것이 좀 뜸했는데, 올해 들어 나름 영화를 많이 봤습니다.  
밀린 영화 리뷰를 써볼까 합니다.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스즈메의 문단속**  
감독 신카이 마코토  
출연 하라 나노가, 마츠무라 호쿠토, 후카츠 에리  
개봉 2023. 03. 08.

개봉 후 7일 지난 3월 15일에 관람했습니다.  
근처 사는 친구들끼리 가서 봤는데,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친구와 저 외에는 관람객이 아무도 없어서 영화관 전세 낸  
것처럼 봤습니다.  
영화입장권 찍은 게 스마트폰 갤러리에 남아 있어서 올려봅니다.



개봉 2주차 특전으로 '스즈메랑 의자' 동화책을 증정했다고 하는데, 흑우답게 모르고 안 가져왔습니다.

찾아보니 특전 동화책이 영화 티켓 비용 가까운 가격에 팔리고 있네요.

동화책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링크](#))이 있으니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작성 시점 기준으로 현재 개봉 10주차 특전까지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후 관람하시게 된다면 저처럼 까먹지 마시고 특전 챙겨오시길 바랍니다.

# 스즈메의 문단속

## 개봉 2주차 증정 특전 공개!

### 증정 경품



▲ '스즈메랑 의자' 동화책

진행 일정: 3/15(수) ~ 소진 시  
진행 극장: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씨네Q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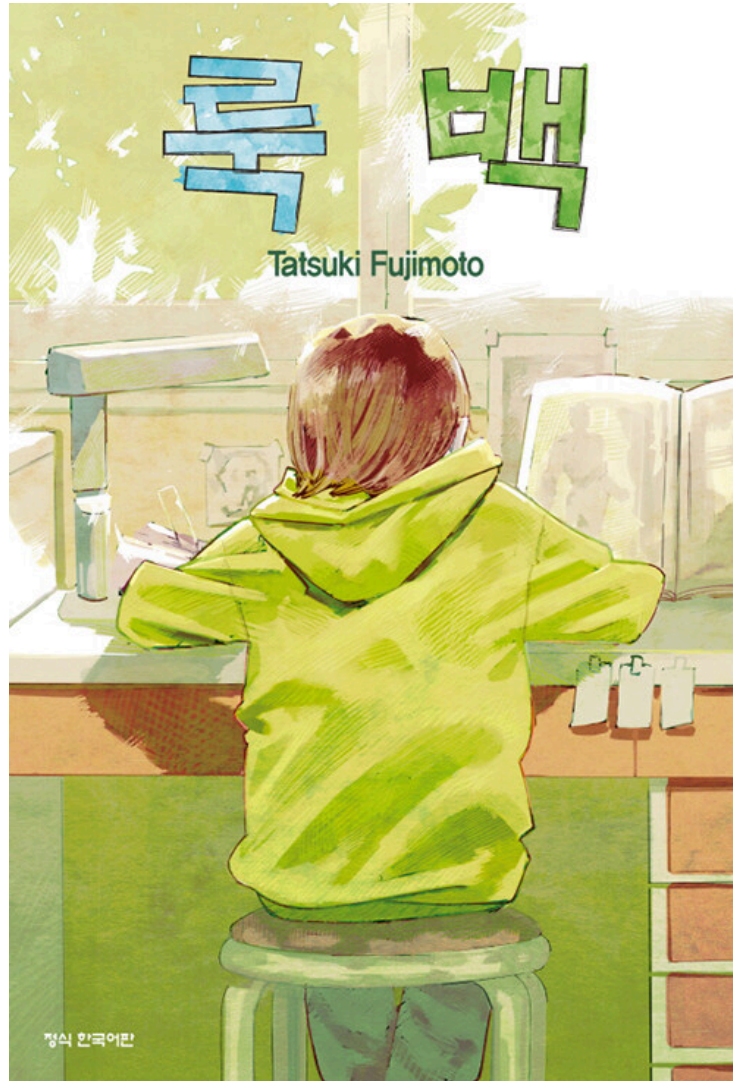
영화를 본 직후 남겼던 리뷰 내용을 바탕으로 리뷰 남겨보려고 합니다.  
가급적 영화 감상 후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스타일이 제 취향에 맞지 않는 걸까요?  
작화도 좋았고 전반적으로 잘 만든 영화 같긴 한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너의 이름은.>을 봤을 때도 비슷한 감상이었고요.  
(뜬금없지만 '너의 이름은' 뒤 온점까지 제목에 포함되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더 그랬습니다.  
이유는 차차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영화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재난 3부작의 마지막인 <스즈메의 문단속>은 동일본 대지진을 추모하고 위로하는 영화라고 보입니다.  
한국 개봉일인 2023년 3월 8일에서 3일 뒤인 2023년 3월 11일은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 지 정확히 12년 되는  
날이거든요.  
영화 속 스즈메가 대지진으로 어머니를 여읜 것이 12년 전입니다.

제 경우 영화 감상 전 동일본 대지진의 정확한 시기를 알지는 못했지만, 대략 그 정도 시기에 대지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렵듯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실화를 기반으로 한 영화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런 점에서 후지모토 타츠키의 <록 백>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이 단편 만화 또한 헌정작의 분위기를 띄고 있거든요.  
학산문화사에서 정식 한국어판으로도 발매된 작품이니 조금 뜬금없지만 한 번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록 백>은 재미있습니다.  
<록 백>이 재미있고 와닿았던 이유는, 공감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품 속 두 사람의 이야기에 마음이 동하고, 어렵지 않게 그들을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일본 내 이야기를 다루지만, 슬프게도 <스즈메의 문단속>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영화의 흐름에 맞게 스토리를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 남은 것은 작화뿐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영화와 일본에 대한 제 얕은 식견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영화 감상 후 찾아보니, 영화 속에서 스즈메가 '문단속'을 하는 장소 하나하나에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가 일본 설화, 신앙 등과도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 같고요.

이러한 배경을 아는 이와 모르는 이의 감상평이 극명히 갈리는 것은 필연입니다.  
제가 영화를 감상한 직후 남긴 토막글이 하나 있는데, 최대한 원문을 살려 아래에 남겨보겠습니다.

너무 단순하고 클리셰 범벅인 플롯, 서사.  
많이 눈치 채진 못한 것 같지만 오마주들이 보이는 건 좋다.  
오마주가 과거 영화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고, 모르는 사람에겐 자연스레 그 작품을 추천해 주는 역할도 하니까.

등장인물 간 묘한 기류, 연애 감정에 공감이 안 된다.  
내가 연애를 안 하고 있어서 그런가?  
차라리 이모랑 직장 동료 아저씨 엮는 게 더 설득력 있겠다.

잘 생겨서 좋아하는 건가?  
그 잠깐 사이에 좋아졌다고 그 사람을 위해 죽음도 불사할 수가 있는 건가?  
역시 잘생긴 게 최고인가 싶었다.

소타는 전공만 교육학으로 나랑 같다.  
그런데 나보다 젊고, 잘 생기고, 군대도 안 가고, 돈도 많은 것 같고...  
아무튼 부럽다.

이제 와서 보니 아무 말이나 쓴 것 같긴 하지만, 저게 배경지식 없던 당시 제가 솔직하게 적은 감상평입니다.  
영화 초반부부터 스팀메가 소타에게 느낀 호감이 영화 끝까지 이야기를 이끌어나가는 주요한 힘처럼 느껴지는 것이  
저로서는 납득하기 힘들었어요.  
이외에도 영화에서 설명 없이 무언가 당연한 듯 건너뛰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소위 친목질이라고들 하죠?  
사실 사람들끼리 있을 때 자기들끼리만 아는 얘기하면, 듣는 모르는 사람 굉장히 소외감 많이 느끼거든요.  
제가 딱 모르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글에서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바로바로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영화를 즐겼습니다.  
그때부터는 작화에 눈이 가고, 이모가 불쌍해지고, 소타와 소타 친구가 부러워졌습니다.  
즐겁게 관람하긴 했지만, 적어도 이게 감독이 의도한 관람은 아니겠구나 생각은 들더라고요.  
물론 영화에 정답이란 건 없겠지만요.

영화에 거짓된 호평을 남기고 싶지도, 악평을 남기고 싶지도 않습니다.  
분명 이 영화는 잘 만든 영화이고, 누군가에게는 큰 감동을 주었을 영화입니다.  
아쉽게도 그게 제가 아니었을 뿐이죠.

개인적으로는 내수 특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랬다면, 지금까지 남긴 제 평은 사실상 동글입니다.  
한국인 입맛 저격한 김치 치즈 불고기 마라 돈가스 라면 떡볶이 국밥을 개발했는데, 외국인이 와서 외국인 입맛에 맞  
춰달라 강요할 수는 없겠죠.

분명 이 영화는 어렵지 않은 영화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차리고 이해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동일본 대지진 참사를 목격하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이 영화가 그들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헌정작이라 와  
닿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에게는 파인애플 피자, 민트초코버거 같은 영화였습니다.





출처: '네오 피자'의 '하와이안피자'(링크), '힘난다 버거'의 '민트초코버거'(링크)

좀 더 지식을 쌓고 보면 감상이 달라지고, 평가를 달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관람 직후 명백히 느낀 이 불편한 감상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분명 어렵지 않은 영화 같은데...

이해하기 어려운 나 자신도, 영화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무지갯빛 몽환적인 노을이 떠오르는 아름다운 작화 하나만으로도 이 영화는 감상할 가치가 충분합니다.

OST도 정말 좋습니다.

특히나 처음 영화 제목이 나오기까지, 첫 문단속하는 장면에서는 전율마저 느껴졌습니다.

제가 뽑는 이 영화 GOAT입니다.

나중에 신카이 마코토 감독 다른 영화들을 더 봐야겠습니다.

작화와 OST만으로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영화.

아는 만큼 보이고, 그렇기에 호불호는 명확히 갈리는 영화였습니다.

혹시나 아직 보지 않았지만 끝까지 제 감상을 읽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작품의 흥행 성공에는 분명 제가 놓친 수많은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대신, 영화 스포 없는 '동일본 대지진'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가시면 감상이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리뷰는 이것으로 마칩니다!



여담

1.

동일본 대지진과 영화 관련 유튜브 영상 링크 몇 개를 아래 첨부합니다.

▶ 동일본 대지진 '스즈메의 문단속'..."살고자 하는 마음이 희망" / YTN

▶ 동일본대지진을 겪은 사람이 본 스즈메의 문단속 해석과 의미 #스즈메의문단속

▶ 서울 면적에 맞먹는 규모의 침수?! 일본을 휩쓸어버린 동일본 대지진 그날의 이야기 | 세계 다크투어 | JTBC 220

921 방송

▶ 한국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스즈메의 문단속 트라우마

▶ 제대로 안보면 절대 알 수 없는 '스즈메의 문단속' 모든 설정들과 해석 당신이 몰랐던 Tmi, 영화 리뷰 [신카이마코토 재난시리즈,스포있음]

리뷰 쓰고 영상들 보니 정말 제가 놓친 부분이 많네요.  
정말 속속들이 리뷰하는 좋은 리뷰 영상도 많고요.  
어중간하게 아는 척 리뷰 남기려고 하지 말고, 저만 남길 수 있는 리뷰를 하고자 노력해야겠습니다.

2.

감독의 전작인 '너의 이름은.'에 나오는 OST '前前世'는 들은 지 6년이 넘은 것 같은데 꽤나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생각난 김에 들으면서 글 쓰고 있습니다.

3.

아무래도 아주 좋게 본 영화는 아니다 보니 리뷰가 조금 무거워진 것 같아서, 글 쓰다가 생각난 유우머 하나 남겨봅니다.  
'이해가 어렵다'의 반대말은?



출처: 우마무스메 신데렐라 그레이

이 달이 쉽다.

4.

언젠가부터 영화를 볼 때 생각을 하고 해석해 보려고 노력하며 보고 있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변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감상을 방해하는 것 같기도 해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초회 감상할 때는 아무 생각 하지 않고 보려고요.  
감상하는 동안에는 영화에만 집중하고, 영화가 끝나고까지 남은 기억을 바탕으로 리뷰를 남겨야겠습니다.

5.

문단속이든 뭐든 보이면 미리미리 합시다.  
나중에 한다고 미루면 까먹더라고요.